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감상곡 및 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

최 은 아*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별 감상곡 및 지도 내용
- IV. 요약 및 제언

I. 서 론

'추상적·운동적·역동적'이라는 본질적 특성이 인간 내면의 세계와 유사한 음악¹⁾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소리를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해있는 감정과 사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즉 음과 리듬으로 이루어진 음악의 패턴은 인간의 삶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악 교육의 목적은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을 느끼고 이해하는 감수성을 발달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의 본질을 보다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음악적 경험의 필수 형태인 감상은 음악 교육의 전반적 과정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감상 행위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이며,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감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듣고 즐기는 정도나, 생생한 음악적 경험의 바탕 없이 음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

*서울 수색 초등학교 교사

1) 김상태, 『음악미학』(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4), 32-38쪽.

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음악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감상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초등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음악 감상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감상곡 및 지도 내용을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초등학생의 단계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감상곡은 서양의 기악음악 중 표제음악에 국한하여 선정하였고, 표제의 주제별로 묶어 제시하였다. 또한 지도의 내용은 음악의 구성 요소들이 음악적 맥락 속에서 어떤 표현 특성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감상의 본질 및 과정

음악 감상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감상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어떤 형의 반응이든, 그 반응은 음악 자체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반응’과 ‘음악의 작곡자나 연주가가 표현하고 있는 음악적 의도나 음악예술의 매개체인 음의 구성요소와 구성원리를 이해하고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해적 반응’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²⁾ 음악 감상을 통해 느끼고 이해해야 하는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에 대해 Reimer는 미적 특성은 표현 형식을 통해 나타나며, 표현 형식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적인 의미(import)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의 표현형식은 “음악 작품의 흐름, 절, 가락, 화음, 음색, 성부조직, 형식 및 음악적 정서에 공헌하는 그 밖의 모든 요소들의 총체적 표현성”³⁾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느낌과 감정을 음과 리듬의 패턴과 형식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며, 표현형식이 경험되는 순간에 작품 속에 내재하고 있는 느낌과 감정에 대한 통찰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통찰이야말로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하지 못하는 예술적 의미(import)를 제공한다”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음악 감상이란 인간의 느낌과 감정을 음악의 미적 특성을 통해 구체화시킨 표현형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표현형식에 대한 직관적 · 직접적 경험 속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의미를 느끼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대해 통찰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이용일,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현대악보출판사, 1986, 216~217쪽.

3) 신도웅 譯, 『음악교육철학』,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3, 73쪽.

4) 신도웅 譯, 상계서, 80쪽.

이러한 음악 감상의 과정 및 단계, 음악적 반응과 감상자들의 유형들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을 종합 ·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음악 감상 과정의 단계(5)6)7)8)

감상의 과정 (이석원)	감상의 단계		음악적 반응의 유형 (이연경)	감상자 유형 (길애경, 임미경)	음악 감상 과정의 단계(정리)
	A. Copland	R. Weiss			
들음의 과정	감각적 단계	무인식적 감상	신체적 · 감각적 반응	감각적 감상자	소리의 감각적 수용 · 반응
느낌의 과정	표현적 단계		감정적 반응	연상적 감상자	정서적 반응
이해의 과정	순음악적 단계	기술적 감상	지적 · 비평적 반응	비평적 감상자	지적 이해
		통찰적 감상		심미적 감상자	미적 통찰

2. 초등학교의 발달 특징

초등학교의 발달 단계를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발달과 음악적 성장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연구가 음악 지도에 시사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1) 저학년(1·2학년)

이 시기의 어린이는 몸놀림이 유연해지고 큰 근육과 함께 작은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정신 발달도 빠르게 진전되어 2000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생생한 상상력과 창의적 기질 또한 활발하다. 또한 사물, 사람, 현상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여 일시적 부류를 만든다.

음악적으로는 셈여림과 음색, 음높이,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흐름결의 특징과 변화에 흥

5) 이석원, 『음악심리학』(서울:심설당, 1994), 65쪽.

6) 이홍수, 『음악여행』(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4), 28쪽.

7) 양현경, “효과적인 음악감상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8)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서울:한국음악교육학회, 1996), 15집, 5-7쪽.

9) 이하의 내용은 길애경, 임미경의 『초등 음악지도법』(서울:수문당, 1996), 9~12쪽과 이홍수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0), 78~79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미를 가지며, 그 특징에 따라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 상상력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음악지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흐름결에 흥미를 가지는 때이므로 여러 가지 흐름결의 형태에 대해 신체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둘째, 매우 활동적이어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친숙함을 즐기므로 노래나 율동, 타악기 연주 등을 반복해서 활동하도록 한다.

넷째,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더 잘 배우는 시기이므로 음악개념을 지도할 때, 실제 경험과 연관시키며, 아직은 자기중심적이므로 동기 유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2) 중학년(3·4학년)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큰 근육이 거의 자유롭게 조정이 되고 작은 근육 움직임도 계속 향상되어 간다. 정신 발달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많은 상징들 특히 숫자에 관해 정통하게 되며 초기 때보다 더 많은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고 개념들을 추상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친구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하며, 특정 그룹에 소속되고자 한다

음악적으로는 청각각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청각 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며 수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수리적 조직에 적응할 수 있고 손의 근 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때이다. 화음감이 덜 발달되었지만 장조의 I, IV, V를 듣고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지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청각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 놀이,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 배우기, 여러 종류의 음악 듣기 등의 체험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져 한 가지 활동을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능력 차가 나타나며 이상한 유머와 상상적 모험을 즐기므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고학년(5·6학년)

이 시기 말엽에는 신체가 사춘기에 접어들므로 급속한 신체 발달이 오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빠르다. 또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여 숫자, 상징, 음악 기호들을 정신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정신적 완숙에 도달하여 어른과 맞먹는 추상력이 생긴다. 또래 집단이 고학년에도 계속 중요한 요소이고, 아이들은 대개 경쟁적이고 자기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힘을 개발한다. 또한 사고와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되며, 장조와 단조의 I, IV, V를 식별할 수 있고, 음악의 짜임새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지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소속감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화음감지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중창 및 중주,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된다.

둘째, 남학생들이 변성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2부, 3부의 노래나 기악, 감상을 더 강화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남·여의 관심이 달라지고, 각 개인의 능력 차이도 커지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수준의 교육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주위환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므로 역사 습관 종교와 사회 문제 등을 반영한 음악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명을 이해시킬 수 있다.

넷째, 어떤 사실에 대한 과학적 이유와 근거에 대해 관심이 생기므로 화음의 원리, 음향학, 악기의 구조 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IV. 초등학생의 각 단계별 감상곡 및 지도 내용

1. 초등학생의 각 단계별 음악 감상의 주안점

(1) 저학년

저학년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음악 감상의 단계는 <소리를 수용>하여, 그 소리의 특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음악의 흐름과 분위기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곡은 음악적으로 주제 선율이나 리듬이 보다 분명하고 간결하며, 실제로 보거나 들어서 그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주변의 동물이나 사물이 묘사의 대상이고, 그러한 대상의 특징이 음악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곡 중에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지도 내용은 음악적 요소와 묘사된 특징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나, 그러한 개념을 인지적으로 형성한다기보

다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데 의의를 두며, 지도에 있어서도 실제의 경험과 연관시켜 연상하거나 상상하고, 흥내내기를 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음악과 친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구성 요소들과 이들의 표현적 특성을 경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2) 중학년

중학년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음악 감상의 단계는 아직까지는 <감각적·정서적 반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음악의 표현 형식을 분석적·종합적으로 인지하는 <지적 이해>가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감상곡의 범주는 저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순히 자신의 실제 경험을 연상하거나, 흥내를 내는 등의 감각적·정서적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묘사 대상의 특징과 음악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사고하며 들으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대상을 묘사한 여러 곡들을 감상하면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고, 음악적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3) 고학년

고학년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음악 감상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감각적·정서적 반응>을 하고, <지적 이해>또한 많이 진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미적 통찰>에 입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곡은 저학년이나 중학년보다 그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묘사하거나, 인간의 감정 등 추상적인 것을 표현한 음악, ‘일새에 흐르는 종소리’처럼 언어적 심상을 표현하거나, 문학과 관련이 있는 곡 중에서 선정하며, 감상에 있어서도 작곡자의 사상적 측면이나 악곡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등 보다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음악적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통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얹혀졌으며,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떠한 음악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특정한 감정이나 표현효과가 창출되는가 하는 표현성의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음악적 의미를 느끼도록 하는’ 음악 감상의 근본적인 목적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면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감상곡을 주제별로 선정·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저학년의 감상곡

시기	주제	감 상 곡
초 등 초 기	빼꾸기(1)	• 레오폴트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중 2악장 • 요나손, <빼꼭 왈츠>
	사자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당나귀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당나귀”와 “귀가 긴 인물”
	캥거루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캥거루”
	휘파람 소리	• 프라이어, <Whistler and his dog>
	숲속의 정경	• 미카엘리스, <숲 속의 대장간> • 엘렌베르그, <숲 속의 물레방아>

〈표 3〉 중학년의 감상곡

시기	주제	감 상 곡
초 등 중 기	빼꾸기(2)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숲 속의 빼꾸기” •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빼꾸기”
	달과 병아리	• 라모, <암탉> •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암탉”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수탉과 암탉” • 무소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달걀 껍질을 쓴 병아리”(편곡: 라벨)
	나비와 벌	• 포레, <나비> • 쇼팽, 연습곡 작품25의 9번 <나비> • 그리그, <나비> • 립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코끼리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 • 드뷔시, <어린이 세계> 중 “코끼리의 자장가”
	백조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정경”
	비와 바람	• 모짜르트, <뇌우>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폴카 <천둥과 번개> • 베토벤, <전원>교향곡 4악장 “뇌우” • 쇼팽, 전주곡 15번 <빗방울> • 쇼팽, 연습곡 작품25의 11번 <겨울 바람>
	시계	• 하이든, <시계> 교향곡 2악장 • 안테르센, <Syncopated Clock>

〈표 3〉 고학년의 감상곡

시기	주제	감 상 곡
초 등 말 기	놀이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숨바꼭질” • 모차르트, 3개의 독일 무곡 중 <썰매타기>
	사냥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폴카 <사냥> • 비발디, <사계> 중 “가을”의 3악장
	물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강”
	종	•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중 “작은 종” • 드뷔시, <영상 2집> 중 “앞새에 흐르는 종”
	기쁨과 슬픔	• 멘델스존, <봄의 노래> •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 쇼팽, 연습곡 작품10의 3번<이별의 곡> • 그리그, <오제의 죽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의 흐름	• 비발디, <사계>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악장 • 루치니, 서곡 <월리엄 텔>

2. 초등학교의 각 단계별 감상곡 및 지도내용

(1) 저학년

1) ‘빠꾸기’

① 감상곡

- 레오폴트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중 2악장
- 요나손, <빠꾸 왈츠>

② 지도 내용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대체로 묘사적이며 표제적인 경향이 짙은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장난감 교향곡>은 이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장난감-나팔, 빠꾸기피리, 나이팅제일, 딱따구리, 메추라기, 종, 딸랑이, 작은 북 등을 사용하여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의 천진한 마음을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는 교향곡이다.

이 중 2악장 미뉴에트는 3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빠꾸기 소리는 악기로 묘사되지

않고 장난감으로 삼입되어 있다<악보 1>

• 주요 개념

뼈꾸기의 소리를 묘사한 가락, 3/4박자의 미뉴에트 리듬, 같은 주제의 반복.

레오폴트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중 2악장 <악보 1> 생략

요나손의 <뼈꾸 왈츠>는 뼈꾸기의 노래 소리를 경쾌한 왈츠 리듬에 실어, 스타카토와 쉼표로 밝고 귀엽게 표현하고 있다.

• 주요 개념

왈츠 리듬, 스타카토, 쉼표의 쓰임, 같은 주제의 반복, 뼈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

요나손, <뼈꾸 왈츠> <악보 2> 생략

2) 사자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② 지도 내용

두 대의 피아노와 현악 합주로 연주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제1곡인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은 사자가 행진하는 모습과 울부짖는 소리를 재미있게 묘사한 곡이다. 현악기들이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행진곡풍의 주제<악보 3-1>는 사자왕이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피아노, 피아노와 낮은 현악기, 현악기들이 주제의 사이사이에 연주하는,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반음계의 음형<악보 3-2>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주요 개념

피아노의 음색, 장식음(트레몰로와 글리산도), 쉼여림(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행진곡풍의 리듬, 가락의 방향(순차적인 상승과 하강의 반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에서 사자왕의 주제 <악보 3-1> 생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에서 사자의 울음 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악보 3-2> 생략

3) 당나귀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中 “당나귀”와 “귀가 긴 동물”

② 지도 내용

생상스는 <동물의 사육제>를 통해 당나귀를 두 번 등장시킨다. 2대의 피아노가 옥타브의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제3곡 “당나귀”는 힘차게 질주하는 야성의 나귀로, 16분 음표의 빠른 음계가 한번도 쉬지 않고 격렬하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악보 4-1>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당나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제1, 2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제8곡 ‘귀가 긴 동물’은 잘 길들여진 나귀가 그 묘사의 대상이다. 고음과 저음, 짧은 음과 긴 음이 대비를 이루며 교대로 연주<악보 4-2>되는 제1, 2 바이올린 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 주요 개념

피아노의 음색, 가락의 방향, 음높이와 음길이의 대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당나귀” <악보 4-1> 생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귀가 긴 동물” <악보 4-2> 생략

4) 휘파람 소리

① 감상곡

• 프라이어, <Whistler and his dog>

② 지도 내용

4/4박자로 된 이 곡은 첫박에 휘파람의 소리가 나타나고, 행진곡풍의 반주부와 부점리듬이 섞인 경쾌한 선율은 휘파람 부는 사람을 따라가는 개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단순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마지막엔 이 음악의 모델인 실제의 휘파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등장한다.

• 주요 개념

행진곡풍의 리듬, 부점 리듬, 주제의 반복.

5) 캥거루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캥거루”

② 지도 내용

2대의 피아노로 연주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제6곡인 “캥거루”는 <악보 5>와 같이 장식음, 스타카토 등을 통해 긴 뒷발로 뛰는 모습을, 빠르기·셈여림의 변화를 통해 많이 뛰었다가 조금씩 뛰거나,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4/4박자에서 4/3박자로의 박자 변화를

통해 뛰다가 쉬는 모습 등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주요 개념

장식음, 주법(스타카토), 빠르기와 썸머림의 변화, 박자의 변화.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캥거루” <악보 5> 생략

6) 숲 속의 정경

① 감상곡

• 엘렌베르그, <숲 속의 물레방아>

• 미카엘리스, <숲 속의 대장간>

② 지도 내용

미카엘리스의 <숲 속의 대장간>은 “밤-아침-시냇물-아침기도-대장간”이라고 명시된 소(小) 표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는 묘사 음악이다,

Adagio, pp로 시작되는 부분은 조용한 ‘밤’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의 트레몰로 반주가 pp에서 p로 가면서, 아침이 밝아옴을 나타내고, ‘아침’이 되어서는 잠에서 깨어난 빠꾸기, 귀뚜라미, 메추리 등의 소리가 맑게 묘사된다<악보 6-1>. 이어 ‘시냇물’의 음형이 흐르고, 찬송가와 같은 화성으로 이루어진 ‘아침기도’가 끝나면, ‘대장간’이 연주된다.

이는 2/4박자의 경쾌한 리듬을 바탕으로, 쇠판을 두드리는 듯한 음형<악보 6-2>, 실제로 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대장간의 모습을 활기차게 그리고 있다.

• 주요 개념

빠꾸기 등의 새소리를 묘사한 가락, 시냇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 찬송가와 같은 화성, 2/4박자의 리듬, 빠르기, 썸머림.

미카엘리스, <숲 속의 대장간> 중 ‘아침’ <악보 6-1> 생략

미카엘리스, <숲 속의 대장간> 중 ‘대장간’ <악보 6-1> 생략

아일렌베르그의 <숲 속의 물레방아>는 서주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냇가에서’와 작은 론도 형식(A-B-A-C-A-Coda)의 ‘물레방아’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실제의 시냇물 소리로 시작되는 ‘시냇가에서’는 시냇물의 흐르는 소리를 나타내는 펼친 화음의 음형<악보 7-1>이 나타나고, 이를 배경으로 실제의 새소리가 맑게 울린다.

‘물레방아’에서는 6/8박자에서 2/4박자로 박자가 변하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빙글빙글 도는 듯한 16분 음표의 음형과 툭툭 튀는 듯한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각각의 주제<악보 7-2>는 물을 튀기면서 빙글빙글 도는 물레방아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 주요 개념

주제의 반복, 시냇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 새소리를 묘사한 가락, 물레방아를 나타내는 음형, 스타카토.

아일렌베르그, <숲 속의 물레방아> 중 '시냇가에서' <악보 7-1> 생략

아일렌베르그, <숲 속의 물레방아> 중 '물레방아' <악보 7-2> 생략

이상과 같이 저학년의 음악은 곡의 주제와 리듬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묘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기가 쉽고, 각각의 특징들이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곡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소리'의 묘사는 음악이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일 수 있고, '2박자 계통의 움직임'의 묘사는 사람의 걸음이 2박자계이기 때문에 그 리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우며, '실제 음의 삽입'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의 소리와 그 소리의 표현 요소를 한 음악 안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관련성에 대해 사고하기 쉽다는 것 등이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정하였다.

소리를 묘사한 것 중 삐꾸기 소리는 단3도나 장3도 간격의 선율로, 사자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순차적으로 상승·하강하는 음계로, 당나귀 울음소리는 높은 음과 낮은 음·긴 음과 짧은 음의 대비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2박자계의 움직임을 표현한 사자왕의 행진, 캥거루의 뛰는 모습, 개가 휘파람 소리를 따라가는 모습 등은 4/4박자의 리듬꼴로 표현되었고, 실제 음은 <장난감 교향곡>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 소리, <Whisler and his dog>에서 휘파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 <숲 속의 물레방아>에서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 <숲 속의 대장간>에서 쇠판 두드리는 소리 등이 삽입되었다.

묘사 대상에 대해 모른 채, 음악을 들으면서 묘사의 대상을 알아맞추거나, 묘사의 대상을 알고,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흉내내기를 한 후 감상하기, 음악에 따라 신체 동작을 하며 감상하기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도 방법을 통해 즐겁고 역동적인 음악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묘사 대상의 특징이 어떠한 음악적 요소를 통해 표현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학년

1) 삐꾸기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숲 속의 삐꾸기"
-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삐꾸기"

② 지도 내용

생상스의 “빠꾸기”는 피아노 2대와 클라리넷 2대로 연주되는데 피아노의 조용한 화음은 깊은 숲 속의 정경을 묘사하고, 클라리넷이 빠꾸기 울음소리를 묘사한다.<악보 8>

• 주요 개념

클라리넷의 음색, 화음, 빠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숲 속의 빠꾸기” <악보 8> 생략

생상스의 “빠꾸기”가 깊은 숲 속에서 혼자 조용히 노래하는 소리를 묘사했다면, 레스피기의 “빠꾸기”는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산 속에서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즐겁게 날아다니며, 노래 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선 악기가 더 많아졌으며, 빠꾸기 울음소리가 전 자에서는 같은 음이 클라리넷만으로 표현된 데 반해, 후자에서는 목관악기, 현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빠꾸기 소리를 연주하며, 그 음높이도 계속 바뀌고 있다. 숲의 정경 또한 빠르기, 셈여림의 변화 등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지며, 부드러운 선율로 아름답게 묘사된다.

• 주요 개념

빠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 및 같은 가락의 동형진행, 빠르기와 셈여림의 변화, 다양한 악기의 음색.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빠꾸기” <악보 9> 생략

2) 닭과 병아리

① 감상곡

- 라모, <암탉>
-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암탉”
- 생상스, <수탉과 암탉>
- 무소르그스키, <달걀 껍질을 쓴 병아리>(편곡 : 라벨)

② 지도 내용

라모의 「클라브생 곡집」에 포함되어 있는 “암탉”은 암탉의 울음소리를 주제로 한 동기<악보 10-1>와 주제 동기의 동형진행, <악보 10-2>와 같은 동기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주제동기는 밝고 경쾌한 음색을 가진 클라브생이 8분 음표로 된 동음을 반복한 후 빠르게 도약 상행하는 선율이 이어지는 독특한 음형을 연주하면서, 암탉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 주요 개념

같은 음의 반복, 클라브생의 음색, 동기의 동형진행, 셈여림의 변화.

라모, <암탉>의 제1주제 <악보 10-1> 생략

라모, <암탉>의 제2주제 <악보 10-2> 생략

레스피기의 “암탉”은 라모의 <암탉>에 바탕을 두고 작곡된 것으로, 그 주제 선율<악보 11>이 동일하다. 그러나 라모가 클라브생 하나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악기 편성이 다채로워지고, p와 f를 대비시키는 등 표현력이 더 섬세해졌으며, 주제가 장식적인 변주 풍으로 다루어지면서 더 색채감 있게 들린다.

• 주요 개념

같은 주제에 의한 작곡된 곡들(라모의 <암탉>/레스피기의 <암탉>) 간의 비교-악기 편성, 분위기 등, 스타카토, 도약 진행.

레스피기, 모음곡 <새> 중 “암탉” <악보 11> 생략

생상스의 “수탉과 암탉”은 피아노 2대, 클라리넷, 바이올린 2대, 비올라로 연주되는데, 먼저 피아노가 암탉의 주제<악보 12-1>를 연주하고 제1, 2바이올린이 차례로 이를 뒤쫓아가 듯 같은 주제를 연주한 후, 피아노가 수탉의 주제<악보 12-2>를 연주한다. 암탉의 주제는 라모나 레스피기의 암탉과 마찬가지로 스타카토로 동음이 반복된 후 꾸밈음과 함께 도약된 음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수탉의 주제는 긴 트릴 후 짧게 하행하는 음형으로 표현된다.

• 주요 개념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의 음색, 가락의 진행 형태(도약), 주법(스타카토), 꾸밈음.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수탉과 암탉”에서 암탉의 주제 <악보 12-1> 생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수탉과 암탉”에서 수탉의 주제 <악보 12-2> 생략

고음에서, pp, 스타카토로, 꾸밈음과 함께 연주되는 목관악기의 음형<악보 13> 및 음색은 작은 병아리들이 삐악거리는 소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피치카토 주법으로 현을 뜯는 현악기의 소리는 주둥이로 꺾질을 쏘는 모습 및 그 소리를, 작은 병아리들의 소리를 묘사한 주제 뒤에 스타카토로 상행하는 반음계는 병아리의 작은 움직임 표현하는 듯하다.

• 주요 개념

음높이, 주법(스타카토, 피치카토), 음표와 쉼표의 반복, 꾸밈음, 썸여림(여리게).

무소르그스키, <달걀 꺾질을 쓴 병아리>(편곡 : 라벨) <악보 13> 생략

3) 나비와 벌

① 감상곡

• 포레, <나비>

- 쇼팽, 연습곡 작품 25의 9번 <나비>
- 그리그, <나비>
- 립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② 지도 내용

포레의 <나비>는 2개의 테마가 번갈아 가며 연주되는데, 제1주제는 첼로가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16분 음표의 순차적인 상승과 하강이 계속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나비가 꽃 주변을 빙빙 도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2주제는 빠른 패시지가 피아노로 옮겨가고, 첼로는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면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며 우아하게 나는 모습을 묘사한다.

• 주요 개념

첼로의 음색, 가락의 진행 형태 및 방향(가락의 순차적인 상승과 하강).

쇼팽의 연습곡 작품 25의 9번 <나비>는, A-B-A-Coda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낮은 음에서 가볍게 스타카토 되어 높은 음으로 도약하는 8분 음표 리듬꼴의 반주부와 이를 바탕으로 슬러에 이어 스타카토로 끝나는 16분 음표 리듬꼴의 선율<악보 14>이 전 곡을 통해 반복된다.

• 주요 개념

가락의 진행 형태(도약), 주법(슬러와 스타카토), 같은 음형의 반복.

쇼팽, 연습곡 작품 25의 9번 <나비> <악보 14> 생략

그리그의 <나비>의 제1주제<악보 15>와 제2주제는 음형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두 개의 주제가 모두 빠른 16분 음표의 순차적인 선율과 점4분 음표의 도약하는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rit.-a tempo가 반복되고, 음량이 대체로 p로 연주된다.

• 주요 개념

점4분음표의 리듬, 가락의 진행형태(순차, 도약), 빠르기(점점 느리게-본래의 박자로), 셈여림(여리게).

그리그, <나비> <악보 15> 생략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은 바이올린과 플룻,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반음계적 상하의 반복이 '벌들이 부지런히 나는 모습'을 묘사하며,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치밀한 트레몰로가 '벌들의 웅웅거리는 날개짓 소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곡이다.

• 주요 개념

가락의 진행 형태 및 방향(순차적인 상승과 하강의 반복),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음색, 트레몰로.

4) 코끼리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
- 드뷔시, <어린이의 세계> 중 “코끼리의 자장가”

② 지도 내용

생상스의 “코끼리”에서 피아노의 가벼운 월츠 반주에 맞추어 어쩔지 서툴게 연주되는 더블베이스의 선율<악보 16>은 육중한 몸집으로 뒤통거리며 움직이는 코끼리의 모습을 귀엽게 묘사한다.

• 주요 개념

더블베이스의 음색, 월츠 리듬.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 <악보 16> 생략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 제2곡인 “코끼리의 자장가”는 어린아이가 코끼리 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한 곡이다.

2개의 테마가 연주되는데, 생상스의 “코끼리”에서와 같이 낮고 느린 선율<악보 17>은 긴 코를 늘어뜨리고 어슬렁거리고 걷는 코끼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 주요 개념

음역(높은 음과 낮은 음의 대비), 셈여림(점점 여리게), 빠르기(점점 느리게), 스타카토.

드뷔시, <어린이의 세계> 제2곡 “코끼리의 자장가” <악보 17> 생략

5) 백조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정경”

② 지도 내용

첼로와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중 제13곡인 ‘백조’는 <악보 18>와 같이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의 피아노 반주와 이에 맞추어 흐르는 첼로의 부드러운 선율을 통해 잔잔한 물위를 부드럽게 헤엄쳐 다니는 백조의 모습을 표현한다.

• 주요 개념

첼로의 음색, 피아노의 반주 음형, 주제의 반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제13곡 ‘백조’ <악보 18> 생략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제1곡 '정경'은 백조 무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아름다운 정경을 표현한 곡으로, 아르페지오로 연주되는 반주 부분은 잔잔한 물의 표면을, 오보에로 울리는 주제의 선율<악보 19-1>은 부드럽고 우아하게 나는 백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상스의 "백조"와 비교해 볼 때, 물은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백조는 우아한 선율로 표현된 것이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단순한 정황을 묘사한 음악이 아닌 즐거리가 있는 음악의 한 부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반주의 음형이 셋잇단음표에서 트레몰로로 바뀌고, 주제 선율의 음역이 높아지고, 주제를 연주하는 악기가 많아지고 그 세기가 커지는 것 등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며, 이어 복합리듬이 나오고, 불안감이 느껴지는 화성이 반복되면서 긴박감을 더해가다가, 박자가 변형된 백조의 주제선율<악보 19-2>이 비장하게 연주되고 끝을 맺는다.

• 주요 개념

음형(아르페지오), 리듬꼴의 변화(셋잇단음표→트레몰로), 음역의 변화(같은 가락이 한 옥타브 높아짐), 셈여림의 변화, 복합리듬, 불안감이 느껴지는 화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의 주제 <악보 19-1> 생략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에서 주제의 박자가 변형된 부분 <악보 19-2> 생략

6) 비와 바람

① 감상곡

- 모차르트, <뇌우>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천둥과 번개>
-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4악장 "뇌우·폭풍"
- 쇼팽, <빗방울> 전주곡
- 쇼팽, <겨울 바람>

② 지도 내용

모차르트의 <뇌우>는 처음 부분부터 바이올린 등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크레센도로 연주되면서,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듯한 느낌이 들며, 일정하게 연주되는 트레몰로는 계속 비가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듯하다. 후반부에서는 다시 크레센도로 몰아간 후, 서서히 비가 개이듯 작고 부드러운 선율이 이어지다가 가벼운 스타카토로 끝난다.

• 주요 개념

현악기의 음색, 트레몰로, 같은 리듬꼴의 반복, 셈여림(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스타카토.

2/4 박자의 쾌활하고 빠른 템포의 폴카 리듬에 실려 연주되는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는 천둥과 번개가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 현악기는 소나기를, 처음 부분부터 크레센도로 몰아치는 큰북의 소리는 천둥 소리를, 심벌즈의 소리는 번개 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 주요 개념

폴카 리듬, 큰북과 심벌즈의 음색

‘뇌우·폭풍’라는 소표제가 붙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의 4악장은 곡 전체의 주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트레몰로<악보 20>로 시작하여, pp로 연주되던 것이 점점 크레센도되고, 현악기와 팀파니의 트레몰로에 맞추어 관악기들이 함께 울리면서, 멀리서 불안하게 울리던 뇌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묘사한다.

전 악기가 싱코페이션의 리듬으로 스포르잔도(sf)되어 울리는 부분은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을,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음형은 거센 바람이 몰려오고 있음을 묘사한다. 또한 관악기들과 팀파니가 하늘 가득한 천둥소리를 묘사하는 가운데, 현악기의 트레몰로 리듬으로 하행하는 선율은 장대 같은 빗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어 곡의 후반에 이르면 현악기들의 트레몰로가 점점 작아지면서 관·현악기의 선율이 부드럽게 연주되고, 스타카토로 상행하는 플루트의 선율이 맑게 울리면서 다음 악장으로 넘어간다. 어느 사이엔가 구름은 저 멀리로 물러가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가늘지만 찬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뇌우>는 팀파니나 현악기의 트레몰로,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의 반복, 관악기들의 힘찬 울림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 개념

현악기, 관악기, 팀파니의 음색, 썸머림(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특히 세게), 당김음, 가락의 진행 방향, 스타카토, 트레몰로.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4악장 “뇌우, 폭풍” <악보 20> 생략

쇼팽의 전주곡 제15번 <빗방울>은 간단한 세도막 형식(ABA)으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에서는 왼손으로 빗방울의 음형이 연주되고, 오른손으로는 장조의 밝고 조용한 선율<21-1>이 아름답게 흐른다. B부분에 와서 빗방울의 음형은 오른손으로 옮겨지고, 왼손에는 단조의 무거운 선율<21-2>이 음산하게 흐르며, 중간부에 와서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가 반복되는데, 이는 빗방울이 몰아쳐 내리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 주요 개념

세도막 형식, 주제의 대비와 반복, 장조와 단조, 셋여림(점점 세게와 점점 여리게).

쇼팽, 전주곡 제15번 <빗방울>의 제1주제 <악보 21-1> 생략

쇼팽, 전주곡 제15번 <빗방울>의 제2주제 <악보 21-2> 생략

쇼팽의 연습곡 작품 25의 11번 <겨울 바람> 중 p로 느리게 연주되는 4마디의 서주<악보 22-1>는 황량한 겨울 풍경을 묘사하며, 이어 빠르기가 알레그로로 바뀌어 연주되는 부분에서 왼손의 선율은 행진곡풍의 단조의 선율로, 오른손의 선율은 고음에서 시작되어 일정하게 하행해 가는 16분음표의 리듬<악보 22-2>으로 연주된다.

• 주요 개념

빠르기의 변화, 단조, 가락의 진행 방향(하행).

쇼팽, 연습곡 작품 25의 11번 <겨울 바람> 중 Lento <악보 22-1> 생략

쇼팽, 연습곡 작품 25의 11번 <겨울 바람> 중 Allegro <악보 22-2> 생략

7) 시계

① 감상곡

• 하이든, <시계 교향곡>

• 안데르센, <Syncopated Clock>

② 지도 내용

<시계>교향곡의 2악장은 제1주제가 연주되는 첫째 부분(1-33마디)과 조바꿈되면서 새로운 주제가 연주되는 둘째 부분(34-62마디), 제1주제가 변주곡풍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셋째 부분(63-150마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학년의 어린이들에게 전곡의 감상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므로, 첫째 부분만 감상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바순과 현악기의 피치카토가 8분음표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시계의 짹짹거리는 소리를 나타내고, 이러한 반주에 맞추어 바이올린이 우아한 주제<악보 23>를 연주한다. 후반에서는 오보에, 플룻, 비올라 등이 함께 연주된다.

• 주요 개념

같은 리듬꼴의 반복, 바순의 음색, 주법(피치카토).

하이든, 교향곡 제101번 <시계> 교향곡 2악장의 제1주제 <악보 23> 생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계는 규칙성과 정확성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1946년에 초연

된 안데르센의 <Syncopated Clock>에서는, 우드블럭이 하이든의 “시계”에서 바순과 현악기가 피치카토로 규칙적인 리듬을 연주한 것과 같이, 4박자의 리듬을 정확하게 치다가, 4마디마다 싱코페이션을 반복<악보 24-1>함으로써, 정확하게 시각을 알리는 일에 싫증을 느낀 시계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A-B-A-C-A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단순하고 재미있으며, 계속 연주되는 우드블럭의 음색이 맑고 경쾌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곡이다. C부분의 멜로디<악보 24-2>는 길게 울리는 패종시계의 벨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듯 우드블럭의 일정한 리듬이 깨지면서 끝을 맺는다.

• 주요 개념

우드 블럭의 음색, 당김음, 같은 리듬꼴의 반복, 형식, 패종시계 벨소리를 묘사한 가락.

안데르센, <Syncopated Clock>의 제1주제 <악보 24-1> 생략

안데르센, <Syncopated Clock>의 시계의 벨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악보 24-2> 생략

이상과 같이 중학년의 음악은 묘사 대상의 범위가 주변의 동물이나 사물,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저학년과 같으나, 저학년 때보다 더 많은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고, 개념을 추상화시킬 수 있으며, 음악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대상을 묘사한 2가지 이상의 곡들을 감상함으로써, 음악적 표현 요소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적 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묘사의 대상은 동물이나 자연 현상 중에서도 원이나 선을 그리는 움직임, 또는 보통보다 느리거나 빠른 움직임을 묘사한 것, 소리와 움직임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을 표현한 것 등에서 선정하였다. 원이나 선을 그리는 움직임 중에서 나비와 벌은 빙빙 도는 듯 반음계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선율이나 위로 올라가듯 가볍게 도약하는 선율로, 백조는 아르페지오 음형의 반주 위에 부드럽게 흐르는 선율로 표현되어 있으며, 느린 움직임 중 코끼리는 느리고 낮은 선율로 표현되어 있으며, 소리와 움직임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비와 바람은 트레몰로와 음량의 변화와 관악기, 타악기 등의 사용, 16분 음표의 격렬한 움직임, 8분 음표의 규칙적인 리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빠꾸기”에서와 같이 주제는 저학년과 같지만, 음악적 전개 방식이 보다 복잡해진 것, 주제의 동기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것, 일정한 시계의 리듬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 등으로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감상곡들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레스피기의 “빠꾸기”는 단지 그 소리를 상징적 언어로 표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빠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이 여러 번에 걸쳐 동형진행되고 이를 연주하는 악기가 변화하는

등, 음악적으로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레스피기의 “암탉”은 라모의 “암탉”에 나오는 주제의 동기를 모방한 것이지만, 전자는 18C의 클라브생으로만 연주된 것에 비해, 악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기능이 발달한 19C에 쓰여진 후자에서는 악기 편성이 다양해지고, 표현력 또한 섬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시계를 표현한 하이든의 <시계교향곡>과 안데르센의 <Syncopated Clock>을 비교해볼 때, 양자 모두 규칙적인 리듬꼴이 반복되지만 후자에는 당김음이 섞여 있어, 일정한 틀 내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일탈이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 감상곡들을 서로 비교하여 들음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개념을 형성해 가고, 음악적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3) 고학년

1) 놀이

① 감상곡

- 슈만,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정경> 중 “술래잡기”
- 모차르트, 3개의 <독일 무곡> 중 “썰매타기”

② 지도 내용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 제3곡에 해당하는 ‘술래잡기’는 쫓고 쫓기는 듯한 빠른 스케르초로 술래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짧은 곡이다.

- 주요 개념

스케르초, 반부주의 리듬꼴.

슈만,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정경> 중 “술래잡기” <악보 25> 생략

모차르트의 3개의 <독일 무곡> 중 제3번 “썰매타기” 중 미뉴에트에서는 모든 악기가 유니즌으로 <악보 26-1>를 힘차게 연주함으로써 썰매를 타기 전의 신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유니즌 후에는 바이올린과 피콜로가 멜로디 부분을 연주하는데, 높고 맑은 피콜로의 음색은 썰매를 타러 가는 어린이들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해 준다. 트리오에 넘어오면서 벨소리가 3박자의 리듬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바이올린과 바순이 <악보 26-2>의 선율을 연주한다. 슈만의 “술래잡기”에서 빠른 스케르초가 아이들의 바쁜 움직임을 표현한 것과 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은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썰매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 주요 개념

3도막 형식, 주제의 대비와 반복, 피콜로와 바순의 음색, 썰매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락, 미뉴에트 춤곡의 리듬, 유니즌.

모차르트, 3개의 <독일 무곡> 중 “쉴매타기”에서 미뉴에트 <악보 26-1> 생략
모차르트, 3개의 <독일 무곡> 중 “쉴매타기”에서 트리오 <악보 26-2> 생략

2) 사냥

① 감상곡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폴카 <사냥>
- 비발디, <가을> 중 3악장

② 지도 내용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폴카 <사냥>은 2/4박자의 쾌활하고 빠른 템포의 춤곡인 폴카 리듬과 이에 맞추어 연주되는 주제의 밝은 선율로 사냥을 하러나가는 모습을 힘차고 당당하게 그려내고 있다. 심벌즈의 소리와 함께 모든 악기들이 스포르판도(sf)로 연주되는 음형은 총소리를 묘사하는데, 트리오 부분에서는 실제의 총소리가 삽입되면서 사냥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트리오의 후반에서는 트럼펫에 의한 사냥의 신호가 울리면서 힘찬 주체부로 되돌아가고, 코다로 이어져 현의 빠른 음형이 연주된다.

• 주요 개념

세도막 형식, 폴카 춤곡의 리듬, 썸머립(특히 세게), 트럼펫의 음색.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의 3악장에는 ‘사냥’이라는 소(小)표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 음과 같은 표제 소네토¹⁰⁾에 의해 전개된다.

A 새벽에는 사냥꾼들이 손에 총과 뿔피리를 들고 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간다.

B 도망치는 짐승을 쫓는 사냥꾼

C 붙잡히도 떠는 짐승들은 쫓기고 총에 맞아 상처 나서 내뺀다.

D 쫓기다 막다른 짐승들은 도망칠 힘도 없어져서 끝내 쓰러진다.

A부분은 뿔피리를 연상케하는 5도 음정의 주체<악보 27>로 시작되는데, 점8분 음표와 8분 음표가 이어지는 리듬은 사냥을 하러 가는 분위기를 힘차고 경쾌하게 형성한다.

B와 C부분에서는 바이올린 솔로가 짐승이 도망치는 것을 표현하듯 셋잇단음표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선율을 연주하고, 이어서 합주 파트가 16음표의 리듬꼴로된 일정한 음형을 뒤쫓듯 연주한 후, 유니즌으로 한 음을 연주하는데 이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사냥”에서 모든 악기들이 sf로 함께 연주하는 음형과 같이, 총소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올린 솔로가

10) 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시기에 유행한 시로 전문이 14행으로 되어있음.

리듬은 셋잇단음표로 동일하지만, 조성이 단조로 바뀐 선율을 연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작곡자가 주(註)를 단 것처럼 총에 맞아 상처입고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D에 와서는 바이올린 솔로가 하행하는 16분 음표 리듬꼴의 선율을 연주하고, 한 음이 한마디에 머무는 음형이 여러 번 반복된 후, 추격하는 듯한 음형을 연주하던 합주 파트가 연주를 멈춤으로써, 쫓기던 짐승들이 마침내 쓰러졌음을 나타낸다.

• 주요 개념

리토르넬로 형식, 뿔피리 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셋잇단음표, 유니즌, 조성의 변화.

비발디, <사계> 중 “가을”의 3악장 ‘사냥’ <악보 27> 생략

3) 물

① 감상곡

•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中 “수족관”

• 스메타나, <나의 조국> 中 “몰다우강”

② 지도 내용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제7곡인 “수족관”은 플룻과 피아노 2대, 현악 4부로 수족관의 맑은 물 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다. 피아노의 고음에서 p로 연주되는 아르페지오는 맑고 잔잔하게 흔들리는 물의 모습을, 플룻과 현의 선율<악보 28>은 지느러미로 곡선을 그으며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다.

• 주요 개념

플룻의 음색, 음높이, 음형(아르페지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악보 28> 생략

스메타나는 6곡으로 이루어진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인 “몰다우강”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쪽 고원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몰다우 강의 모습과 이 강이 흐르면서 만나는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스메타나는 각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다음과 같은 註를 적어 구체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며 음악을 듣는데, 그 중에서도 물의 흐름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며 듣도록 한다.

▷ 몰다우의 수원 - 숲의 사냥 - 농부의 춤 - 달빛과 물의 요정의 춤 - 성 요하네의 급류 - 몰다우는 당당하게 흘러간다 - 비셰프라트¹¹⁾ <

11) 보헤미아가 도이칠란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때(10-13C), 왕들이 거하던 성의 이름.

• 물다우의 수원

바이올린과 하프의 피치카토 반주 위로 두 개의 플룻이 물결의 잔잔한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을 연주하고, 이어 클라리넷이 비슷한 음형을 대화하듯 연주하는데<악보 29-1>, 이는 차가운 쪽과 따뜻한 쪽의 두 수원이 만나 합류해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음형은 생상스의 “수족관”이나 “백조”에서 물을 나타냈던 음형과 같이 선율의 선이 물결이 흐르는 것과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플룻과 클라리넷의 흐름이 연주된 후, 현악기들이 잔잔한 물의 음형을 연주하고 그 위에서 바이올린과 오보에가 폭넓게 흘러가는 강의 주제<악보 29-2>를 연주한다. 이 가락은 체코의 민요로부터 채용된 것이라고 한다.

• 주요 개념

피치카토, 플룻과 클라리넷, 오보에의 음색, 물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 강의 주제 선율.
스메타나, “물다우강”에서 ‘물다우의 수원’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29-1> 생략
스메타나, “물다우강”에서 강의 주제 <악보 29-2> 생략

• 숲의 사냥

4개의 호른이 사냥의 뿔피리를 나타내는 음형<악보 29-3>를 연주하면서 사냥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이것이 연주되는 사이에도 현악기는 계속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을 연주한다.

• 주요 개념

호른의 음색, 뿔피리를 나타내는 음형,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
스메타나, “물다우강”의 ‘숲의 사냥’에서 사냥의 뿔피리를 나타내는 음형 <악보 29-3> 생략

• 농부의 춤

스타카토 반주에 따라 목관악기와 현악기로 흥겹게 연주되는 이 부분<악보 29-4>은 체코의 민속 춤곡인 폴카 리듬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농민의 혼례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을 나타낸다.

• 주요 개념

스타카토, 폴카 리듬, 셋여림(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싱코페이션.
스메타나, “물다우강”에서 ‘농부의 춤’ <악보 29-4> 생략

• 달빛-요정의 잔치

약음기를 붙인 바이올린의 고음에서 연주하는 선율<악보 29-5>은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을 나타내고, 플룻과 클라리넷이 처음 부분에서 물다우 수원(水源)을 나타냈던 음형을 변형해서 작게 연주하는 부분은 물의 요정의 춤을 표현하며, 사이사이에 연주되는 하프의 아르페지오는 아

롭다운 색채감을 느끼게 한다. 후반에 가서는 작게 연주되던 물의 요정의 음형에 엑센트가 가해지고 음량이 크레센도 되면서 처음 부분에서 연주되었던 강의 주제가 재현된다.

• 주요 개념

주제부의 재현, 악음기를 붙인 바이올린의 음색, 하프의 음색, 엑센트.

스메타나, “몰다우강”에서 ‘달빛-요정의 잔치’에서 달빛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29-5> 생략

• 성 요하네의 급류

팀파니의 트레몰로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첫 박을 터트리듯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음량이 커지면서 빠르게 상행하는 음계 후 스타카토로 이어지는 음형을, 현악기들이 연이어 연주한다. 이러한 동기가 동형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후반에 가서는 도약하는 음들이 트레몰로로 격렬하게 연주되면서, 물보라를 튀기고, 소용돌이치면서 흘러가는 급류의 모습을 나타낸다. 현악기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파곳, 낮은 현악기, 목관 악기 등에 의해 강의 주제를 연주되는데, 이는 급류 속에서도 당당하게 흘러가는 강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일어서는 조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 몰다우는 당당하게 흘러간다

성 요하네를 지나 옛 궁성에 이르러, 격렬하게 연주되던 급류의 음형이 잠잠해지고, pp로 고요해진 후, 다시 ff로 힘차게 강의 주제가 연주된다. 이는 같은 음형이 단조에서 장조로 바뀐 것<악보 29-6>으로, 환희에 가득 찬 분위기를 형성하며, 희망을 다짐하듯 엑센트가 많이 표시되어 있다.

스메타나, “몰다우강”에서 ‘몰다우는 당당하게 흘러간다’에서 강의 주제가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어 나타나는 부분 <악보 29-6> 생략

• 비셰프라트

여기서는 <나의 조국>의 제1곡인 “비셰프라트”의 동기<악보 29-7>가 나타나는데, 비셰프라트는 옛날 보히마아가 도이칠란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때(10-13C)에 체코인의 왕들이 거하던 성으로, 영광스런 과거를 지닌 보히미아의 땅에 다시 독립과 번영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스메타나의 깊은 생각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이 주제가 관악기들에 의해 연주될 때도 현악기는 아르페지오와 같은 음형을 계속 연주하면서, 멈추지 않는 몰다우 강의 흐름을 나타낸다.

스메타나, “몰다우강”에서 ‘비셰프라트’의 주제 <악보 29-7> 생략

4) 종

① 감상곡

-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중 제3곡 '작은 종'
- 드뷔시, <영상 2집> 중 '잎새에 흐르는 종'

② 지도 내용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중 제3곡인 '작은 종'은 피아노의 고음에서, 맑은 음색으로, p의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주제 선율<악보 30>이 화려하게 변주되면서, 높은 곳에서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아주 높은 음에서 빠른 스케일의 상·하로 변주되는 부분은 잘게 부서진 소리 입자가 파장을 일으키며, 빗처럼 쏟아져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주요 개념

피아노의 음색, 음높이, 스타카토, 주제의 변주, 가락의 진행 및 방향.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중 제3곡 '작은 종' <악보 30> 생략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라 할 수 있는 드뷔시의 <잎새에 흐르는 종소리>는 표제로부터 받은 느낌을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Lent, pp, 스타카토로 이어지는 온음계적 선율<악보 31>은 깊은 정적을 느끼게 하고, 아르페지오의 반주에 실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종소리의 음형이 맑게 연주된다.

• 주요 개념

빠르기(느리게), 셈여림(여리게), 스타카토, 음형(아르페지오), 온음계, 종소리를 묘사한 가락.

드뷔시, <영상 2집> 중 '잎새에 흐르는 종' <악보 31> 생략

5) 기쁨과 슬픔

① 감상곡

- 멘델스존, <봄의 노래>
-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 그리그, <오제의 죽음>
- 쇼팽, <이별의 곡>

② 지도 내용

멘델스존은 음의 소재만으로도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49곡의 무언가를

작곡하였다. 이 중 한 곡인 <봄의 노래>는 흐르는 듯한 낭만적인 선율, 꾸밈음, 적절한 스타카토의 사용 등<악보 32>을 통해 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환희에 찬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 주요 개념

꾸밈음, 스타카토, 가락의 형태(도약), 동형진행.

멘델스존, <봄의 노래> <악보 32> 생략

오스트리아 빈이 고향인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은 빈의 옛 민요에 의한 왈츠곡이며, ABA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에서는 점4분 음표, 스타카토, 상승하는 선율, 트릴, 엑센트 등이 어우러진 쾌활하고 밝은 멜로디<악보 33>가 왈츠 리듬에 실려, 사랑의 기쁨, 이로 인한 벅찬 감정 등을 표현한다. B에 와서는 느린 속도의 애수면 선율이 이어지며, 사랑의 감정에 수반되는 아련한 아픔 같은 것이 살짝 나타나는 듯하다가 다시 A의 밝고 경쾌한 주제가 연주되면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다.

• 주요 개념

점4분 음표, 스타카토, 트릴, 엑센트, 왈츠 리듬, 속도의 변화, 세도막 형식, 주제의 대비와 반복.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악보 33> 생략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은 <사랑의 기쁨>과 대조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랑의 기쁨>과 같이 빈의 옛 민요에 의한 왈츠로, 반주부에서는 계속 왈츠 리듬이 나타나고, 이 리듬을 타고 흐르는 감미롭고 애상적인 가단조의 선율<악보 34>이 사랑의 슬픔을 쓸쓸하고 잔잔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간단한 세도막 형식(ABA)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곡은 B부분에 와서 가장조로 바뀐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면서, 회상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듯하다가 다시 A로 돌아와 사랑의 슬픈 기억을 아파하듯 가단조의 애상적인 선율이 흐른다.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을 비교해 볼 때, 양자는 모두 ABA라는 세도막 형식 속에서, 전자는 아픔을 지난 후의 기쁨을, 후자는 사랑이 지난 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요 개념

세도막 형식, 주제의 대비와 반복, 조성의 변화(장조/단조), 왈츠 리듬.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악보 34> 생략

그리그의 <오제의 죽음>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페르퀀트를 맞아 적정한

미소를 띠며 운명하는, 고독했던 어머니 ‘오제’의 죽음을 그린 곡이다.

단조의 느리고 비장한 제1주제<악보 35-1>는 3번의 동형진행을 통해, 음정이 높아지고, p-mf-f-ff로 음의 세기가 커지면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후에는 마치 산에서 내려오듯, 혹은 체념하듯, 반음씩 하행하는 제2주제<악보 35-2>는 4번의 동형진행을 통해, 음정이 낮아지고, pp까지 그 세기가 작아지면서, 조용하고 비통하게 흐르던 선율이 끝을 맺는다.

• 주요 개념

단조, 빠르기(느리게), 셈여림(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동형 진행, 화음, 주제의 대비.

그리고, <오제의 죽음>의 제1주제 <악보 35-1> 생략

그리고, <오제의 죽음>의 제2주제 <악보 35-1> 생략

쇼팽의 연습곡 작품10의 3번 <이별의 곡>은 ABA의 세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에서는 당김음의 리듬꼴이 반복되는 절제된 리듬패턴과 이를 바탕으로 조용하게 흐르는 선율<악보 36-1>이 잔잔한 슬픔의 느낌을 표현하고, B부분에서는 격정적인 음형<악보 36-2>을 통해 이별로 인한 번민을 표현하며, 결국은 이별을 받아들이듯 다시 A로 돌아가 절제된 선율이 흐르고 마친다. <사랑의 슬픔>이나 <사랑의 기쁨>과 같이 ABA의 세도막 형식 속에서 이별의 슬픔으로 번민하다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개념

당김음, 세도막 형식, 주제의 대비와 반복.

쇼팽, 연습곡 작품10의 3번 <이별의 곡>의 제1주제 <악보 36-1> 생략

쇼팽, 연습곡 작품10의 3번 <이별의 곡>의 제2주제 <악보 36-2> 생략

5) 봄, 여름, 가을, 겨울

• 비발디, <사계>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악장

② 지도 내용

비발디의 협주곡 <사계>는 바로크시기에 쓰여진 표제음악으로, 소네토를 충실히 음악화하는 방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묘사한 작품이다.

봄, 여름, 겨울, 가을의 특징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의 소네토를 읽은 후, 각 계절의 특징과 이에 바탕을 둔 문학적 내용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음악을 감상하도록 한다.(감상은 각 계절의 1악장에 한하도록 한다.)

• 봄

‘봄’ 1악장의 소네토는 다음과 같다.

- A. 봄이 왔다.
- B. 새는 즐거운 소리로 봄을 맞고
- C. 샘물을 산들바람에 유혹되어서 졸졸 흐르는 소리를 달콤하게 낸다.
- D. 먹구름과 번개가 하늘을 달리고 뇌성이 봄이 왔다고 알린다.
- E. 폭풍이 멎고 새들이 다시 상쾌하게 노래하기 시작한다.

A에서는 봄이 온 것을 알리듯, 경쾌한 리듬에 실려 밝은 선율<악보 37-1>이 힘차게 연주되고, B에서는 장식음, 트릴, 경쾌한 스타카토 등을 통해, 봄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노래하는 새소리를 묘사한다. <악보 37-2>와 같이 바이올린의 세 파트가 새소리의 음형을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부분은 새들이 서로 대화하듯 노래하는 느낌이 든다.

C에서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시냇물의 음형이 연주되고, D에서는 전 악기가 unison으로 연주하는 트레몰로와 긴박감이 느껴지는 바이올린 솔로의 선율, 반주부에서 계속되는 트레몰로는 먹구름과 번개가 하늘에 가득 차는 모습과 뇌성의 울림을 묘사한다.

E에 와서는 가벼운 스타카토와 트릴 등 새소리의 음형이 연주됨으로써 폭풍 후 다시 새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 주요 개념

장식음, 트릴, 스타카토, 새소리를 묘사한 가락, 시냇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형, unison, 트레몰로.

비발디, <사계> 중 “봄” 1악장의 주제 <악보 37-1> 생략

비발디, <사계> 중 “봄” 1악장에서 새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악보 37-2> 생략

‘여름’ 중 제1악장의 표제 소네토는 다음과 같다.

- A. 불타는 태양의 계절에는 사람이 지치고 개도 지치고 소나무도 시든다.
- B. 그러나 빠꾸기가 울기 시작하고
- C. 산비둘기와 가르델리노의 노래가 들린다.
- D. 산들바람은 상쾌하게 불지만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닥쳐
- E. 소나기를 내리게 하여 목동을 당황케 한다.

A는 pp와 p로, 첫박자를 쉬고 하강하는 선율을 반복하는 리듬 형태의 동기<악보 38-1>는 힘이 들어 자꾸 쉬는 모습, 또는 숨을 헐떡이는 모습 등 여름의 더위에 지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악보에는 ‘더위에 지친 느낌으로 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B에서는 <악보 38-2>와 같이 빠꾸기의 소리를 모방한 음형이 연주되면서 다시 빠꾸기가 울기 시작함을 나타내고, C에서는 바이올린 솔로가 산비둘기와 가르델리노라는 새소리를 연주한다. D

에서는 셋잇단음표 리듬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반복되면서<악보 38-3> 시원한 바람을 묘사한 후, 선율은 비슷하나 리듬이 점4분 음표로 바뀌고, 한 음정씩 하행하여 동형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어서 찬바람이 몰아쳐오고 있음을 묘사하는 음형이 연주된다.

E에서는 느리고 질질 끄는 듯한 선율로 연주되는 바이올린 솔로가 마을 사람들의 탄식을 묘사하고, 16분음표의 빠른 리듬에 실려 한 음으로 계속 도약 하행하는 음형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묘사한다.

• 주요 개념

섬표의 쓰임, 가락의 방향, 가락의 반복, 빠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 셋잇단음표와 점4분 음표, 동형진행, 슬러의 쓰임, 소나기를 묘사한 음형.

비발디, <사계> 중 “여름” 1악장의 주제 <악보 38-1> 생략

비발디, <사계> 중 “여름” 1악장에서 빠꾸기 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악보 38-2> 생략

비발디, <사계> 중 “여름” 1악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38-3> 생략

‘가을’ 1악장의 표제 소네토는 다음과 같다.

- A.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 B. 술은 축제를 열광케하고
- C. 향연 끝에는 포근한 잠

A는 단순한 선율과 리듬<39>의 반복으로 농부들의 무뚝뚝한 춤을 묘사하는데, 이는 풍년을 축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다.

B는 16분 음표 리듬의 선율이 32분 음표, 셋잇단음표 등으로 뚜렷한 규칙성이 없이 변형이 되어 연주되는 부분, 술에 취해 비틀거리듯 첼로와 바이올린 솔로가 8분 음표 하나씩을 엇갈려 연주하는 부분, 바이올린 솔로가 흔들거리며 다니는 ‘주정꾼’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 등을 통해 술이 축제를 열광시키고 있음을 표현한다.

C는 합주부분이 라르게토로, 규칙적인 리듬을 점점 작게 연주하고, 솔로는 한마디에 한 음씩 천천히 하행하는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축제 끝에 포근한 잠에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모두 잠이 들어 정적에 쌓인 듯 섬표가 이어진 후, A의 주제 동기가 흥겹게 연주되고 마친다.

• 주요 개념

음형의 반복, 리듬꼴의 변화, 규칙적인 리듬꼴, 셈여림(점점 여리게), 섬표의 역할
비발디, <사계> 중 “가을” 1악장의 주제 <악보 39> 생략

‘겨울’ 1악장의 표제 소네토는 다음과 같다.

- A. 차가운 눈에 덜덜 떨면서
- B. 억센 바람이 부는 곳을
- C. 끊임없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뛰고 있다.
- D. 너무 추워서 이를 악물지 못하고 떨린다.

A는 동음반복의 음형<악보 40-1>을 통해 너무 추워 덜덜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B는 32분 음표의 리듬으로 도약 하행하는 음형과 이 음형의 음정이 높아지면서 동형진행하는 것을 통해 억센 바람이 몰아쳐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C는 32분 음표로 달리지만 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면서<악보 40-2> 제자리에서 뛰고 있음을 재미있게 나타내며, D는 계속되는 트레몰로<악보 40-3>를 통해 이가 부딪치도록 강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주요 개념

같은 음의 반복, 가락의 진행과 방향, 동형진행, 트레몰로.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의 1악장에서 추위에 떠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40-1> 생략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의 1악장에서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40-2> 생략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의 1악장에서 이가 부딪치도록 강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형 <악보 40-3> 생략

6) 이야기의 흐름

① 감상곡

• 롯시니, <윌리엄 텔> 서곡

② 지도 내용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롯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은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난 스위스 혁명을 배경으로, 활의 명수 윌리엄 텔의 활약이 펼쳐지는 애국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새벽

단조로 느리게 상승하는 첼로의 선율로 시작되는<악보 41-1> 제1부는 스위스 산간의 온화하고 신비스러운 새벽을 묘사한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압정 하에 있는 스위스에 여명이 찾아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요 개념

서곡, 단조, 가락의 방향, 첼로의 음색.

롯데니, <윌리엄 텔> 서곡 중 ‘새벽’ <악보 41-1> 생략

• 제2부 폭풍

폭풍우의 전조처럼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작게 연주된다. 이어 높은 현에서는 하강하는 빠른 패시지가 f로 반복되면서, 긴박감을 조성하고, 반주부에서는 팀파니의 울림과 함께 싱코페이션의 리듬이 연주되면서, 격렬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는 폭풍우를 묘사하는 것인데, 애국지사들과 민중의 항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후반부에서는 폭풍우 음형의 연주가 점점 작아지고, 계속되는 팀파니의 트레몰로 소리 또한 점점 작아지면서, 폭풍우와 천둥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며, 이어 플룻이 폭풍우가 지난 후의 새들의 노래 소리를 맑은 음색으로 묘사한다.

• 주요 개념

트레몰로, 가락의 방향, 당김음, 팀파니의 음색, 폭풍우를 나타내는 음형, 썸머림, 플룻의 음색

• 제3부 고요함

잉글리쉬 호른의 음색과 <악보 41-2>와 같은 음형은 평화로운 전원에 울려 퍼지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표현하며, 이 선율에 따라 연주되는 플룻의 오블리가토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주요 개념

잉글리쉬 호른의 음색, 오블리가토.

롯데시, <월리엄 텔> 서곡 중 '고요함' <악보 41-2> 생략

• 제4부 스위스군의 행진

트럼펫의 독주에 이어, 2/4박자로 된 행진곡풍의 리듬과 이 리듬에 맞추어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되는 선율<악보 41-3>은 승리한 스위스군대가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과 이를 맞이하는 민중들의 환호를 나타내고 있다.

• 주요 개념

트럼펫의 음색, 행진곡풍의 리듬.

롯데시, <월리엄 텔> 서곡 중 '스위스군의 행진' <악보 41-3> 생략

고학년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향상되고, 장조와 단조의 주요 3화음 및 음악의 짜임새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묘사의 대상은 어린이들의 움직임에서 하는 '놀이', '물'의 흐름, '종소리'의 파장 등 그 특징을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감정을 표현한 것(기쁨과 슬픔), 언어적 심상을 표현한 것

(드뷔시의 <잎새에 흐르는 종>), 문학적인 작품을 음악화시킨 것(비발디 <사계>, 그리그 <오제의 죽음>, 릿시니 <윌리엄 텔>), 작곡자의 조국애가 표현된 것(스메타나의 <몰다우강>) 등 추상적 사고와 작곡자의 사상 및 작품의 시대적 배경 등,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선정하였다.

음악적으로는 장조와 단조의 차이 및 변화를 느끼고(‘기쁨과 슬픔’, 스메타나의 몰다우강에서 강의 주제가 단조에서 장조로 변화되는 것), 풍부한 화성(그리그의 <오제의 죽음>)과 새로운 음계(온음계)의 진행(드뷔시의 <잎새에 흐르는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때부터 감상하였던 새소리나 비와 바람 폭풍우 등이 한 음악 안에 복합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곡(스메타나의 <몰다우 강>, 비발디의 <사계>, 릿시니의 서곡<윌리엄 텔>)을 통해 이전에 감상했던 곡과 비교하여 들어보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엮어져 이야기(시)의 흐름을 음악적으로 전개시키는지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3부분 형식(모차르트의 <썰매타기>,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 쇼팽의 <이별의 곡> 등)과 리토르넬로 형식(비발디의 <사계>), 2부분 형식(그리그의 <오제의 죽음>) 등으로 이루어진 곡들을 통해 주제의 대비와 반복을, 변주곡 형식(리스트 <작은 종>)을 통해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어 가는지를 느끼고 지각하도록 하며, 그러한 형식 속에서 작곡자가 예술적 의도를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별 음악 감상의 주안점을 토대로 선정된 감상곡과 진술된 감상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빠꾸기 소리를 묘사한 가락’의 경우는 저학년에서는 그 소리 자체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고(<장난감 교향곡>, <숲 속의 대장간>, <숲 속의 물레방아>에 나오는 빠꾸기 소리 등), 중학년에서는 동형 진행, 악기의 변화 등 음악적으로 보다 다채롭게 전개되는 곡들을 통해 음악적 사고를 넓히도록 하였으며(레스피기의 <빠꾸기>), 고학년에서는 문학적 내용을 작품화한 음악적 작품 속에서 표현된 빠꾸기 소리의 음형(비발디의 <사계>)을 통해, 사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를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물’의 경우에도 저학년에서는 <숲 속의 물레방아>에 나오는 시냇물의 실제소리를 듣고 이를 표현한 시냇물의 음형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중학년에서는 ‘백조’의 반주부에 나오는 물의 음형을 비교하여 들으면서(생상스의 <백조>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중 “정경”), 물이 아르페지오 형태의 음형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지각하며, 고학년에서는 스메타나의 <몰다우 강>을 통해 물의 흐름을 표현한 주제의 계속적 변형, 강의 주제의 단조에서 장조로의 변화 등 음악적 요소를 지각하고, 이의 결합·전개 등이 조국을 사랑하는 작곡가의 마음, 그 사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의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음악 감상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물리적 음현상을 청각각에 의해 수용하는 <소리의 감각적 수용·반응>의 단계.

둘째, 음의 흐름과 분위기에 감정적·주관적으로 느끼고 연상하는 <정서적 반응> 단계.

셋째, 음악의 표현 형식을 분석적·종합적으로 인지하는 <지적 이해> 단계.

넷째, 물리적인 음현상을 듣고, 이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미적 통찰>의 단계.

이러한 음악 감상의 단계를 초등학생의 발달 특징과 접목시켜, 초등학교의 각 단계가 음악 감상의 과정상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감상곡을 선정하였는데, 감상곡의 선정 범위는 서양의 기악음악 중 표제음악에 한하였으며, 표제의 주제별로 묶어 제시하였고, 음악적 맥락 속에서 음악의 구성 요소가 어떤 표현 특성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학년에서는 주변의 동물이나 사물, 자연현상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묘사된 음악의 감상을 통해,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묘사 대상의 특징이 어떠한 음악 요소를 통해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감각적·정서적으로 반응>하여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학년에서는 주변의 동물이나 사물, 자연 현상 등을 표현한 곡 중에서 같은 대상을 묘사한 여러 곡들을 주제별로 묶어 음악적 요소와 표현 특징과의 관련성을 비교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여 <지적으로 이해>하고, 음악적 사고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학년에서는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 정서, 사상, 문학적 내용 등을 표현한 곡들을 통해 <미적 통찰>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떠한 음악적 요소들의 결합·전개가 작곡자의 의도를 담아내고, 예술적 의미를 발생시키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도록 하였다.

2. 제언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내용이 초등학교의 음악 감상 지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관련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감상곡은 각 단계의 감상 관점에 따라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표제음악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나, 국악과 서양의 절대음악 중에서 초등학생들의 각 발달 단계에 적절한 감상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감상곡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진술하는데 그쳤으나, 학습현장에서 실제적인 지도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와의 연계성 있는 감상 지도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길예경, 임미경 編著(1996), 『초등 음악지도법』. 서울 : 수문당.
- 김문자 외 4인 編著(1993),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 심설당.
- 김형주(1994), 『음악감상법』.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노영해 譯(Leonard G. Ratner 著) (1995), 『서양음악의 어법과 의미』. 서울 : 세광출판사.
- 방금주 譯(H. F. Abeles, C. R. Hoffer, R. H. Klotman 共著) (1990),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 삼호출판사.
- 서인정 譯(Victor Zuckerkandl 著)(1992), 『음악과 상징』. 서울 : 예하출판주식회사.
- 송방송(1994),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울 : 음악춘추사.
- 세광 편집국(1988), 『명곡해설전집』.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신도웅 譯(B. Reimer 著)(1993), 『음악교육 철학』.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양일용 譯(H. M. Miller 著)(1996), 『음악감상을 위하여』. 서울 : 태림출판사.
- _____ 譯(Alden Buker 著)(1995), 『음악감상의 새로운 접근』. 서울 : 태림출판사.
- 이석원(1994), 『음악심리학』. 서울 : 심설당.
- 이용일(1986),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1994), 『음악 여행』.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외 4인 共譯(Michael L. Mark 著)(1992), 『현대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정세문(1986), 『음악감상교육』. 서울 : 문영문화사.
- Estelle R. Jorgensen 編(1993), 『Philosopher, Teacher, Musician : Perspective on Music Education』. Urbana and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논문>

- 강시남(1996), “음악적 의미와 공감을 돕는 학습의 원리와 내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현경(1996), “효과적인 음악감상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경(1996),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5집.
- 이영미(1996), “체계적인 창작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s of Music Appreciation Materials and Contents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oi, Eun Ah

Music is an art to communicate human feelings and ideas through sound. One of the primary goals of music education is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mselves better by developing their sensibility through musical experiences. Music appreciation is the very basic form of experiencing music.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appreciative ability can be improved by training such as paying attention to the qualities of sound, responding to the music expressions, as well as grasping the concepts on musical elements and principles. It is an essential constituent of mus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musical materials for elementary school music appreciation classes in regard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this goal in mind, I surveyed the general stages of music appreciation described in the several previous studies. I suppose thre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is considered briefly as a preliminary study.

In the main body of this study, I made actual selections of music appreciation materials with these stages in mind. I made the selection exclusively from the instrumental program music. I presented the selections by their title and described the content focusing on their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constituent musical elements.